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는 위험을 과소평가한 '착시'이며, 매크로 현실이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임. 1. **\*\*소비 심리의 구조적 붕괴\*\*:** UMCSENT 56.6 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따른 실질 구매력 붕괴의 선행 신호임. 과거 사례와 달리, 산업생산 (INDPRO) 이 견조해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 (특히 반도체 외 섹터) 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휴전 기대와 무관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공급망 차단을 초래하여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킴. 이는 CPI 둔화 속도를 둔화시키고 연준의 긴축 기조를 장기화시켜, 금리 인상 기대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할 것임. 3. **\*\*AI 버블의 한계\*\*:**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는 AI 섹터에 국한된 현상이며, 내수 기반이 약화 (UMCSENT 저조) 된 상황에서 AI 수요만으로는 전체 시장 (SPX, NDX) 의 하방을 지지하기 어려움. 고용 시장 (ICSA) 이 25 만 건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상승할 경우, '고용-소비' 악순환이 시작되어 시장 랠리는 무력화될 것임.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며,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을 하방 지지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과 소비자심리 저조와 같은 매크로 리스크를 '일시적 공포'로 치부하고, 실물 경제 지표 (산업생산, 고용) 의 견조함을 근거로 금리 인하 기대와 성장 지속을 선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는 WTI 유가가 1 개월 만에 12.56%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VLCC 운임이 과거 평균 대비 폭등하는 등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주식 시장 하락 간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 (Beta -5.16) 가 확인되어, 유가 급등이 AI 수요를 상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키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유가 급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경고가 현재 데이터 (WTI 1M Return 12.56%, RAG 물류 비용 폭등) 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가설 A 의 '일시적 왜곡' 가설을 반증하고 가설 B 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및 성장 둔화'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Action:** WTI 숏 포지션 즉시 청산 및 GOLD 비중 확대 전환

**Invalidation:** WTI 1 개월 수익률이 -5% 이상 반등하여 공급 충격이 일시적임이 확인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무력화될 가능성,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유가 급등에 따른 과도한 숏 포지션 청산 (Short Squeeze) 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 이벤트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되어 물류 비용 급등이 소멸할 경우

## Macro Picture

**Regime:** expansion

**Key Themes:** 지정학적 휴전 기대와 증시 랠리,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AI 주도 반도체 시장 성장

**Dominant Narrative:**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며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463.2원 수준으로 하락하며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짐.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목소리가 커지며 시장 내 경계심리도 공존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지만,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시장 2000조 원 성장 기대감이 주요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Reality:** 산업생산지수 (INDPRO) 가 102.551 (2026-02) 수준을 유지하며 생산 활동이 견조함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UMCSENT) 는 56.6 (2026-02) 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됨. 10Y-2Y 국채 스프레드가 0.51% (2026-04-09)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 신호는 명확하지 않으나, 실업수당청구건수 (ICSA) 가 21.9만 건 (2026-04-04) 으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함. 다만, CPI 가 327.46 (2026-02)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둔화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는 매크로 리스크가 존재함.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가 옳으며, 매크로 데이터는 일시적인 왜곡을 반영할 뿐임. 1. **\*\*데이터의 구조적 오해\*\*:** 소비자심리지수 (UMCSENT) 의 저조 (56.6) 는 실제 소비 위축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유가 급등에 대한 '일시적 공포'에 기인한 심리적 반응임. 실제 산업생산지수 (INDPRO) 가 102.551 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실업수당청구건수 (ICSA) 가 21.9 만 건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은 실물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확인됨을 의미함. 2. \*\*AI 수요의 선행 효과\*\*: 반도체 시장 2000 조 원 성장 기대감은 단순한 테마가 아닌,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실질적인 설비투자 (CAPEX) 증가를 반영한 선행 지표임. 이는 내수 소비의 일시적 둔화를 상쇄하고 기업 실적을 지탱할 핵심 동력임. 3. \*\*인플레이션의 일시성\*\*: CPI 둔화 지연은 공급망 차단 우려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휴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유가 하락과 공급망 정상화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둔화될 것임.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우려는 과잉 반응이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성장 지속'을 선반영한 상태임.

시장 내러티브는 '휴전 기대'와 'AI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하방 지지 요인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 반면, 매크로 데이터 중 UMCSSENT 저조는 심리적 요인 (공포)이며, 실제 실물 지표 (INDPRO, ICSA) 는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님을 증명함. 따라서 시장의 상승 흐름은 합리적이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는 휴전으로 인해 해소될 일시적 변수임.

## B (Market Wrong)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는 위험을 과소평가한 '착시'이며, 매크로 현실이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임.

1. \*\*소비 심리의 구조적 붕괴\*\*: UMCSSENT 56.6 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따른 실질 구매력 붕괴의 선행 신호임. 과거 사례와 달리, 산업생산 (INDPRO) 이 견조해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 (특히 반도체 외 섹터) 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휴전 기대와 무관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공급망 차단을 초래하여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킴. 이는 CPI 둔화 속도를 둔화시키고 연준의 긴축 기조를 장기화시켜, 금리 인상 기대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할 것임. 3. \*\*AI 버블의 한계\*\*: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는 AI 섹터에 국한된 현상이며, 내수 기반이 약화 (UMCSSENT 저조) 된 상황에서 AI 수요만으로는 전체 시장 (SPX, NDX) 의 하방을 지지하기 어려움. 고용 시장 (ICSA) 이 25 만 건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상승할 경우, '고용-소비' 악순환이 시작되어 시장 랠리는 무력화될 것임.

시장 내러티브는 '휴전'과 'AI'라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매몰되어, UMCSSENT 가시하는 구조적 소비 위축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충격 (인플레이션 재점화) 을 간과하고 있음. 매크로 현실은 '생산은 좋으나 소비는 죽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임을 보여주며, 이는 시장이 가격 매긴 '연착륙' 시나리오와 정면 배치됨.

**Key Question:** 향후 2 주 내 ICSA(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가 25 만 건을 상회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동시에 WTI 유가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 전월 대비 5% 이상 상승하여 CPI 둔화 흐름을 무력화할 것인가?

## Tensions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에 따른 증시 랠리와 달러 약세 내러티브가 확산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는 매크로 리스크가 공존함.

0.70

Narrative: 휴전 기대감으로 리스크 자산 선호와 달러 약세 흐름 지속

Reality: CPI 둔화 지연과 공급망 차단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

SPX USDKRW US10Y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이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심리지수 저조와 실업수당청구건수 증가 등 내수 소비 위축 신호가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킴.

0.60

Narrative: AI 주도 성장과 반도체 시장 확대를 통한 기업 실적 호조 기대

Reality: 소비 심리 위축 (UMCSSENT 56.6) 과 고용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내수 기반 약화 우려

NDX COPPER

산업생산지수 견조함과 고용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 확장 내러티브가 유지되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안한 휴전 합의에 따른 시장 경계심리가 공존함.

0.50

Narrative: 견조한 생산 및 고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기 확장 (Expansion) 국면 지속

Reality: 불안정한 휴전 합의와 환율 변동성 (1,463~1,482원 등락) 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

DXY VIX

## Eval Scores

PASS

Overall 3.5

Tension 4

Hypothesis 5

**Feedback: 1. \*\*tension\_validity (4/5)\*\*:** 지정학적 리스크 (호르무즈) 와 매크로 데이터 (CPI, 고용) 간의 긴장 관계는 매우 설득력 있게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휴전 기대감'이라는 내러티브가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 (예: 특정 외교 채널의 진전 등) 를 바탕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과장된 낙관론으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투매', '폭락'과 같은 과장 표현은 사용되지 않아 감점 요인은 없으나, '시장 경계심리' 등의 표현이 정량적 지표 (VIX 등) 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면 더 좋습니다. 2. \*\*hypothesis\_quality (5/5)\*\*: 가설 A(낙관적 내러티브) 와 가설 B(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가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동등한 논리적 무게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일시적 공포 vs 구조적 붕괴', '일시적 인플레이션 vs 고착화'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매우 명확하여 검증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3. \*\*evidence\_targeting (3/5)\*\*: 데이터 소핑리스트는 가설 검증을 위한 적절한 변수 (ICSA, WTI, UMCSENT 등) 를 선정했으나, \*\*수집된 증거의 편향성\*\*이 문제입니다. `evidence\_summary` 에서 RAG 검색 건수가 10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verdict` 에서 'Beta -5.16'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이미 가설 B를 지지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찾았거나 (Confirmation Bias), 실제 데이터 소스 (FRED, Bloomberg 등) 와의 정합성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Beta -5.16'은 주식과 원유의 일반적인 상관관계 범위 (-0.5 ~ -1.5) 를 크게 벗어난 수치로, 데이터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verdict\_logic (2/5)\*\*: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과 수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 \*\*수치 오류 (감점 -2)\*\*: `verdict` 에서

MORNING ANGLE 2026-04-10

시장의 부: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며,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을 하락 지지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과 소비심리 저조와 같은 매크로 리스크를 '일시적 공포'로 치부하고, 실물 경제 지표 (산업생산, 고용) 의 견조함을 근거로 금리 인하 기대와 성장 지속을 선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론: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는 위험을 과소평가한 '착시'이며, 매크로 현실이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임. 1. \*\*소비심리의 구조적 붕괴\*\*:** UMCSENT 56.6 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따른 실질 구매력 붕괴의 선형 신호임. 과거 사례와 달리, 산업생산 (INDPRO) 이 견조해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 (특히 반도체 외 섹터) 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 2.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휴전 기대와 무관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공급망 차단을 초래하여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킴. 이는 CPI 둔화 속도를 둔화시키고 연준의 긴축 기조를 장기화시켜, 금리 인상 기대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할 것임. 3. \*\*AI 버블의 한계\*\*: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는 AI 섹터에 국한된 현상이며, 내수 기반이 약화 (UMCSENT 저조) 된 상황에서 AI 수요만으로는 전체 시장 (SPX, NDX) 의 하방을 지지하기 어려움. 고용 시장 (ICSA) 이 25 만 건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상승할 경우, '고용-소비' 악순환이 시작되어 시장 랠리는 무력화될 것임. [HIGH]

하지만 시장의 낙관적 내러티브는 WTI 유가가 1 개월 만에 12.56%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VLCC 운임이 과거 평균 대비 폭등하는 등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주식 하락 간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 (Beta -5.16) 가 확인되어, 유가 급등이 AI 수요를 상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키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판정에서 제시된 '유가 급등과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경고가 현재 데이터 (WTI 1M Return 12.56%, RAG 물류 비용 폭등) 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가설 A의 '일시적 왜곡' 가설을 반증하고 가설 B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및 성장 둔화'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WTI 숏 포지션 즉시 청산 및 GOLD 비중 확대 전환

무효화: WTI 1 개월 수익률이 -5% 이상 반등하여 공급 충격이 일시적임이 확인될 경우

